
2020년 제2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6. 26. ~ 7.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6. 26.	시청률	0.005

【총 평】

최근 북한 도발과 6·25 전쟁 70년이라는 핫 이슈를 ‘단박톡’과 ‘북마크TV’에서 다뤘다. 남북관계 전문가 박지원 교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산증인으로서 우리정부, 북한의 제1 부부장 김여정 등에 대해 이번 남북한 긴장관계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 했고 맞는 것은 맞고의 일침으로 평화적 남북관계를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단박톡은 “위기 남북관계, 북한의 숨은 의도와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해법은?”에 대해 다루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강도 높은 남측 비방과 수위 조절, 도발로 인한 남북 현안과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북마크TV는 “한반도 긴장 고조 속 대남 적대 여론으로 떠들썩한 북한 상황은?”을 통해 북한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가장 최근 남북한의 현안을 있는 그대로 파헤치고 얼마전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발로 긴장감을 촉발했던 사건에 대해 냉철하게 북한의 의도를 전해주어 남북한의 긴장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단박톡은 최근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과 북한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전쟁 위험 부담 등 평소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점을 핵심만 선별하여 풀어내는 구성이 몰입감을 높였고, 북마크TV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조변석개 현상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방송이었다.

단박톡은 남북 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된 대북전단 일명 삐라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삐라의 역사와 정부의 대처, 북한의 대응 등을 상세히 설명해서 많은 이해를 도왔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숨은 속내와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변화되었을 김정은 위원장의 감정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어 상당히 흥미로웠다. 또, 이번 북한 행동의 전면에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운 점을 다룬 부분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미국과의 관계에 얽혀 있어 사실상 어느 것도 하기 힘든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표현해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이 여러모로 의미심장해서 기억에 남았다. 또, 삐라 방지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표명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서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었다.

<북마크TV>는 대북전단에 항의하는 북한 주민들의 시위 현장과 언론 보도, 인터뷰 영상 등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외교적 해결 대신 주민을 동원하는 속내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남북관계라는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6. 26.	시청률	0.058

【총 평】

6.25전쟁 7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전쟁을 넘어 평화로 가는 과제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대담으로 이뤄져 시의성과 기획성이 적절했다. 특히 6.25 참전용사 평균연령이 89세에 이르러 점차 희미해지는 전쟁의 기억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벌이는 각종 사업이 소개되고 해외 참전용사에 보은의 의미로 코로나 방역 마스크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져 의미를 더했다.

결론부분으로 '전쟁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의 과제로 바른 역사교육과 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일깨운 점이 돋보였다. 또,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한평생을 국방에 전념해오고 6.25전쟁 70주년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비역대장이 안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6.25전쟁 70주년 주제인 '기억, 함께, 평화'의 키워드에 맞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몰입감을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았다. 최근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때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역할일 것이다. 현재 참전 용사들의 연세가 80세 이상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참전기념비'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를 통해 전후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이야기했는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었다. 특히, '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한국은 잊지 않는다' 등은 관련 내용을 담아내는 데 상징적이고 적절한 부제였다.

유해 미발굴 국군전사자의 수를 의미하는 '122609 태극기 캠페인'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했다. 22개국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스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부대 장병 초청행사, 참전국 현지 감사행사, 참전국 후손과 함께하는 국제학술회의 등이 국내외서 이뤄진다. 6.25전쟁 70주년 추진사업내용 중에 'GS 편의점과 같이 협력해서, 치러지는 행사', '1020대 서포터즈 행사' 등이 있었다. 전쟁과 평화통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할 젊은이들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눈길 끌었다.

지금도 분단의 고통과 불안한 평화가 진행 중이라며 전쟁의 재발은 막아야 하고 그러자면 6.25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6. 27.	시청률	0.310

【총 평】

‘연꽃 낭만’-‘연꽃향이 날리는 그 곳에 가면’ 제목으로 경기도 양평 지역의 연꽃을 중심으로 불거리, 먹을거리와 함께 자연의 소리를 담아냈다. 세계적인 판데믹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콕’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탈출구와 함께 청량제 역할을 해낸 기획이 돋보였다. 연꽃정원 세미원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새소리가 자연의 소리 채음이라면 도예가가 풍로로 모닥불에 구운 흙피리로 연주하는 청아한 소리는 또 다른 사운드로 감동을 주었다. 특히, 8월까지 피는 연꽃 비경과 연콩국수가 소개돼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침체된 지역 관광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연꽃의 낭만, 흙피리 만드는 도예인, 귀촌한 젊은 부부의 꿈 등 3가지 소재를 옴니버스식 구성에 담아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연꽃의 낭만이라는 부제로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연밭이 조성된 두물머리, 흙을 만지며 사는 도예가, 귀농초보 부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양평 두물머리 주변의 ‘물 맑은 양평, 양질의 흙, 제철 연꽃이 피는 장소, 민물장어로 유명한 지역’이란 특징이 있어, ‘물-식물-어류’ 등 다양한 자연적 소재들이 등장했다. 두물머리 배다리, 연꽃이 피는 세미원, 도예가가 만드는 흙피리, 맑은 물이 흐르는 곳, 청량한 흙피리 소리, 연 콩국수, 민물장어 요리 등이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을 두루 자극했다.

두물머리는 한 때 나루터였다. 과거 정선 일대에서 채벌한 나무들을 뗏목을 엮어서 한양으로 이송하다가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 두물머리에서의 낭만을 찾아 연꽃향을 따라가다보면 해마다 6, 7월에 연밭으로 변하는데 이곳에는 비경이 숨겨져 있다. 징검다리를 지나면 세미원이라고 불리는 생태정원이 나온다. 이곳 생태정원에서는 연밭이 펼쳐지며 그중 1년에 단 두 달간 연꽃이 핀다. 기본적으로 ‘청량한 녹색’ 색감이 많이 등장해서, 눈을 맑고 밝게 하는 느낌이었다. 초여름 특유의 청정한 정취를 잘 살려줬다.

지평면의 도예가마을에서 아직도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도예가를 만나보았다. 개구리나 새 같은 자연의 생물들을 본 따서 피리를 만든다. 고운피리소리를 위해 공을 많이 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반죽되고 피리로 만들어진 작품은 불과 바람을 만나 구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 단월면에서는 쌈채소와 장어를 기르는 초보 귀농인들을 만났다. 장어회 뜨기부터 굽기까지 모든 일에 서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다.

배다리, 세미원 부근의 연꽃의 비경, 연콩국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흙피리를 모닥불로 굽는 장면, 장어양식한 물로 신선초를 수경재배하는 모습 등 훌륭한 영상미를 보여주었다. 또,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흙피리로 연주하는 청아한 소리가 사운드멘터리의 완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6. 27.	시청률	0.112

【총 평】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인 “보행자 안전 ‘제로’... 위험천만 생활도로”와 울산시 민원인 “장마철 도로 유실 막아라...안전신문고 현장점검”을 다뤘다.

“보행자 안전 ‘제로’... 위험천만 생활도로”편은 생활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불편을 세심한 현장 취재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뤘다. 특히,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미뤄진 지자체 안일함과 민원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흔적을 담으면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천착한 취재였다. 또, 울산광역시 민원인 “장마철 도로 유실 막아라...안전신문고 현장점검”은 장마철 비 피해 우려시기에 따른 아이টে를 시의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위협을 줄 만한 내용이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접하는 내용이라 공감의 폭이 컸다. 특히 장마철 도로 유실 관련 내용은 곧 닥쳐올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기에는 꼭 다루어줄 만한 내용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인도 없는 위험천만 도로

대구시 서구의 한 상가 도로의 위험한 상황을 보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시 서구의 인도 없는 상가 거리였는데 이런 장소가 생각보다 흔하게 널려 있어 공감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 같다.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제로인 상황에서 생활속 불편 개선을 호소한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처리를 해나가는 소식이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았던 도로로 4거리 구간의 전면적 360도 카메라 화면을 비추어 자세한 소식을 전달하여 문제 도로의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취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론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등 위험의 요소가 많아서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

■ 장마철 도로 유실을 막아라!

울산 울주군의 붕괴 직전의 도로를 취재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유실 우려가 있는 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치 및 향후 대책을 들어 봤다.

안전신문고에 지난 4월에 도로 유실 위험에 대한 개선 조치 민원이 신고 되었는데 6월이 지난 지금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행안안전부가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섰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개선 처리 과정의 느장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취재기자 현장점검 결과 우선 임시 안전조치는 해놓은 상태이고 큰 공사인데다가 토사가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한다. 임시 안전조치라고는 하지만 하루빨리 제대로 개선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타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6. 28.	시청률	0.005

【총 평】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경남 창녕군의 9세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9세 아동 여행가방 사망 사고를 계기로, 최근 한 달간 이슈가 된 ‘아동학대’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다뤘다. “아동 학대, 부모가 맞나요?”을 통해 어린 영혼에 대한 살인이라고도 불릴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문제를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았다.

특히, 2017년 5세 고준희 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8년 ‘아동행복지원시스템’까지 마련하여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해 부모들의 소유 개념을 반성하고 인격체로 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현상이 사회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추진 대책을 전하여 안심하게 하였다.

【구성 및 내용】

우리 생활속에서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계모, 계부의 가정 속에서 아동들의 학대에 대해 우리 전국민 모두가 한번쯤 냉철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사건이었고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노릇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던 시간이었다.

창녕과 천안의 아동학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시선을 끌었다. 창녕 여아의 상태나 차후 관리 계획, 또 천안 남아를 위한 추모공간 등 주변의 상황을 두루 전한 것이 다른 매체와는 조금 차별화되었다.

천안 남아가 사망한 아파트 상가의 추모공간도 공개가 되었고 생전 학교의 임시분향소도 공개가 되었는데 이 역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추모하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줄줄이 등장하는데 볼 때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전주의 고주희 양 사망 사건을 근거로 발의된 아동학대법의 역사를 조금 훑어보고 본격적으로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추홀구의 두 학부형이 등장해서 인근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회상하면서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를 짚어나간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임시로 보호가 되다가 원 가정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라 현행 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되고 어떤 점을 위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도 명백히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대표가 등장해서 중요한 멘트를 많이 해주었는데 특히 아동학대 방지법에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해서 많은 공감을 샀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6. 28.	시청률	0.154

【총 평】

슈퍼 도라지가 났다는 내용의 '내 심장을 뛰게 한 약도라지' 제목과 코로나19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도라지 소재가 우선 시선을 끌었다. 약도라지 재배자인 주인공의 거침없는 입담과 확고한 농사철학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과 전망을 진정성있게 털어놓으면서 귀농에 뜻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도 강점이다.

특히, 해설 분량을 줄이고 주인공의 말을 많이 살린 점, 농촌 풍물 위주에서 재배 품목의 특성, 가공, 매출, 전망 등을 꼼꼼히 알려준 점은 새로운 포맷의 변화로 긍정적이다. 주인공의 뚜렷한 농사 철학, 농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전달돼 우리 농업 미래의 긍정적 메시지를 살린 부분이 호감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약도라지 농사를 짓는 도라지는 약도라지로 생김새도 남다르다. 줄기와 뿌리가 풍성하며 흔히 우리가 아는 식용도라지와는 다르게 약성도 높다 이에 주인공 이봉선씨는 약도라지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고 지금까지 약도라지 농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약도라지 농사는 물론 농업은 2차 가공이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약도라지의 다양한 가공부터 베트남까지 넓혀가는 홍보 및 판촉까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약도라지 농사 사랑을 그려주었다.

특히, 약도라지 재배하는 모습, 약도라지즙 가공 생산, 딸 셋과 주말 나들이하는 단란한 모습, 다시 밭을 일구는 모습 등이 리얼하게 그려졌다. 약도라지 재배에 인생을 건 귀농 10년차 40대 농부의 삶과 농사에 대한 애착, 앞선 영농에 대한 믿음을 진정성있게 그려냄으로써 귀농에 뜻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기획이 뛰어났다.

도라지 노래를 하는 모습, 약도라지 뿌리를 텃 밭에 대고 약도라지로 변신하는 모습 등이 시선을 끌었고, 21세기 보부상 모습으로 판촉활동에 나서는 주인공의 예능감을 살린 점도 시선을 끌었다. 또, 약도라지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도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약도라지즙의 기부 등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순환농법, 시설재배 등을 시도하며 “힘든 만큼 제값을 한다,”, “도시는 과포화 상태이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인데 비해 오히려 농업에 미래가 있다”는 새로운 영농에 대한 집념, 농업에 대한 믿음과 철학이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인공은 농업이 새로운 미래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이 보기에 도시는 치열한 경쟁사회로 보이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농사일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고생한 만큼 세상이 알아줄 것이고 약도라지도 그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힘든 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6. 30.	시청률	0.059

【총 평】

호국보훈의 달 관련 리포트 2건이 방송돼 시의성과 기획력을 살렸다. <호국영웅 8인 칠곡 방문>은 백발이 성성한 90대 낙동강 참전용사 등 영웅8인이 6.25전쟁 격전지 칠곡 호국의 다리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호국보훈의 달 기획으로 적절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애국심을 일깨우는 내용도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강제동원 희생자 기리며>는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속에서 희생자 위패 봉안과 관련 영상, 사진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데 따른 생활 속 변화 관련 리포트 2건도 시의성에 맞는 참신한 소재가 시선을 끌었다. <등산도 이젠 '혼산'·'둘산'>은 코로나19가 바꾼 등산 풍속도를 포착해낸 점이 신선했고, 소규모 인원의 등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대응책·대비책을 알려준 것이 시의적절했다. 또, <동화책 읽는 어른들>은 '코로나 블루'가 장기화되면서 어른들이 동화를 읽으며 치유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6.25 격전지 중 하나인 칠곡을 방문한 '호국영웅 8인의 이야기'와 '기억의 터'를 소개한 취재는 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하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동화책을 읽는 어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일러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과거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담겨 의미있었고, '나라와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마지막 날의 콘텐츠로 잘 맞췄다. 칠곡을 방문한 호국영웅 8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방문에 의미를 두지 않고 지역주민과 학생들과 만나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특징적인 리포트를 만들었다. 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인 '기억의 터'도 좋은 소재였고, 동화책을 통해 위안을 얻는 어른들 이야기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혼산-둘산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마련하면서도, 취약점인 '안전 관련 정보'도 충실히 전해, 도움이 됐다. 코로나19로 공공시설이 상당 수 문을 닫으며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상당히 늘어났고, 혼자 또는 둘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도 충분히 담고 주의를 당부해 여러 모로 유익했다. 산악구조 전문가 조언을 통해 '혼자보다는 2인 1조, 지정된 등산로 이용,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산행, 구급약품·물·행동식 핸드폰 배터리·여분의 배터리 준비, 탐방로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 숙지 등을 당부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6. 30.	시청률	0.085

【총 평】

올해 1분기 경기 부진상황과 2분기 경제 위축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IMF 세계 경제성장률 -4.9% 전망,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구는?”, “S&News 투기와 전쟁, 끝까지 간다”를 방송했다. 오늘의 경제이슈 주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생활 속 경제 위기를 진단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지침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어 강력한 메시지 전달 효과를 낳았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률이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에서 우리 정부는 각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지 또한 국가 재정능력 및 부채 비율 등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전 국민의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했지만 세계 각국 비교했을 때 그래도 건전한 상태임을 보여주어 다행스러웠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를 마감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 및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장 기대야 할 곳인 국가의 재정 능력 및 채무율을 살펴 보았다. 코로나 현황부터 살피면서 주제에 접근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세계적인 추세도 함께 살펴보면서 접근을 이뤄냈다.

IMF가 전망한 세계 성장률 수치를 국가별,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잘 들어왔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치만 놓고 다룰 때보다 확실하게 비교가 되어 더욱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주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21년의 전망 수치까지 준비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와 닿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치가 가장 적은 편이어서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국가채무 추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보니 경제 규모에 대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폭이 세계 최저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었다. 물론 집계에 반영된 국가들의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상징성이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였다.

<S&News> 부동산 소식 및 코로나 항체 검사의 전국민 실시라는 의료체계의 철두철미하고 신뢰감있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정부가 7월안에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연결고리 없는 확진사례가 늘고 있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정부의 의료 선진 시스템도 놀랍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극복하려는 의지와 대처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신뢰감을 주는 소식이었다.